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의 한 부족을 방문했다고 해요. 그곳의 사정을 둘러보니 이 부족은 물이 없어서 먼 곳에서 물을 길러 오는 것이 하루의 고된 일과였습니다. 선교사님은 너무 안타까워서 우물을 파기 위해 수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곳에서 수맥을 발견하게 되어 너무 기뻐서 주장에게 이제 이곳에 우물을 파자고 제안했습니다. 주장은 부족회의를 열어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잠시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선교사님은 우물을 파면 부족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을 기대하며 기다렸어요. 이윽고 부족회의를 하고 돌아온 주장이 선교사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물 길러 다니느라 바빠서, 우물을 팔 시간이 없대네요...”

지금하고 있는 일이 너무 바빠서 정작 중요한 일을 그르칠 때가 의외로 많아요. 조금 더 힘을 합쳐서 우물을 파고나면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을 길러야 한다는 고됨과 고착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은 오늘 말씀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인은 권위를 얻게 되는데, 삶이 바빠져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할 수 없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과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면 안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권위 혹은 권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권위”는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권위라고 하면 정치인이나 재력가 권력가를 먼저 떠올리실 수도 있지만, 사실 모든 사람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게에서 사장님은 사장님으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시면 그 자격으로도 권위를 가지고 있는겁니다. 한국 공동체에선 나이도 권위가 됩니다. 가방끈이 권위가 되기도 합니다. 가정환경이 권위가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나 권위가 있지만, 누구나 권위적으로 살진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아주 권위적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은 말합니다. “**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예수님의 교훈이죠)**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진정한 권위를 보면 사람들은 놀랍니다.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보고 당시 사람들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고 했어요. 서기관들은 권위주의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오늘날도 목회자가 이랬다, 교회 리더들이 저랬다, 교회가 이랬다 하는 이야기들을 메스컴을 통해 듣게 될 때, 놀라움보다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은 시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메스컴이 나쁜 쪽으로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독교도 오늘날 세속화되어서 그 빛이 바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권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철저히 섬김의 삶이세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수많은 설명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servant leader 즉, 섬김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인 미연합감리교회에서도 servant leadership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가르칩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이라는 섬김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이 또한 그에 맞는 권위가 있습니다. 집사님으로서의 권위, 권사님으로서의 권위 말입니다. 남들한테 지시하고 시키는 권위가 아니라, 먼저 솔선수범하여 섬기는 권위 말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권위와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기득권으로 오히려 섬기는 것이 권위가 된다는 겁니다. 위에 군림하고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며 나누고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성경적인 리더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정황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환호했습니다. 이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은 바짝 긴장을 했지요. 유대 명절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였고, 혹시 민란이라도 날까 우려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따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모두 쫓아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다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서는 성전을 다시 방문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21장 23절의 정황입니다. 그 곳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무리를 만나셨습니다. 이 무리는 하루 전날 성전에서 있었던 일을 직접 본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라면 그 일에 대해 사람들에게서 들었을 겁니다. 이들은 성전에 오면서, “성전 운영에 대한 권위는 전적으로 자기들에게 있는데, 감히 이런 ‘짓’ 을 하다니. 이 일은 ‘불법’ 이다. 이것은 ‘산헤드린(Sanhedrin)의 권위에 도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를 깔고 나온 겁니다.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의 신분은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기관인 산헤드린(Sanhedrin)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에서는 종교와 정치에서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령, 성전 안에서 비싼 값으로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았습니다. 또, 로마 화폐를 히브리인 화폐로 환전할 때 높은 이를 취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를 하려면 그들에게 비싼 자리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뒷돈이 오가고 했던 것도 다 이들의 권위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위에 대한 질문’ 을 받으신 예수님은, 당신도 ‘권위에 대한 질문’ 으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렇다면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신들메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했고, 자신은 물론 세례를 주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예수님 위에 내리는 것을 봤다고 했으니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즉 아무런 신성한 권위가 없다고 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로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일어나는 주변에도 군중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었던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권세에 대해서 정직하게 답변하기를 거부하고 일버무렸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라고 질문하신 후에, 두 아들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예"라고 대답했지만, 포도원에 가지는 않았습니다(28-29).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도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 가서 일했습니다(30). 주님은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 당시의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사역의 현장에 신학생 때부터 생각하면 28년이 되었고, 목사로서 풀타임 사역을 한지도 17년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비유의 첫째 아들과 같이 사람들 앞에서 선뜻 대답하지만 행동과 삶이 따라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둘째 아들과 같이 자신은 안하겠단, 왜 맨날 나만해야하나, 이런 고생을 내가 교회까지 와서해야하나 했다가도 나중에는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전 교회서 사역할 때 지금은 타주로 이사하신 성도님 가운데, 그분은 새벽마다 교회에 오셔서 맨날 교회를 고치시는 분이 계셨어요. 당시 새벽기도회가 끝나면 같이 아침을 먹고, 탁구를 치거나 테니스를 치거나 했었는데, 이 성도님이 한 두어달을 교박 새벽마다 오셔서 친교실 벽에 크랙난거 고치고, 여기저기 손보느라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다리를 놓고 같이 교회 이곳 저곳을 고쳤던 기억이 납니다. 같이 새벽 친교를 나고 싶은 성도님들과 말이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직도 잔잔한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첫번째 아들같은 사람들은 율법에 순종하겠다고 말한 후에 순종치 않았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두번째 아들같은 사람들은 율법과 상관없다 말한 후에 누우치고 순종한 창기와 세리들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정신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세례 요한과 메시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지만, 후에 회개하고 세례 요한과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선고를 받은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잃었던 생명을 찾았다고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구원자로 고백하며 살기로 다짐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철저히 인정하고 삽니까? 그래야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그냥 호칭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여전히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속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그것이 예수님의 호칭이어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앞으로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될 때 진정한 섬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만 섬겨서 지치고 힘드는데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나오게 되요.

어느 큰 정신병원의 구급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전한 일과로 환자를 병원에 내려놓고 차를 돌리려고 하는데 병원의 위층 창문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좀 보세요!” 운전기사가 소리가 나는 병실 위층을 바라보니 병실 창문에 상체를 내어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저 말이에요?” 그러자 내다보던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아도 될까요?”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환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건강한 정신을 가졌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해 본 일이 있나요?” 운전기사는 ‘별 정신 나간 사람 다보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 운전기사는 고

백했습니다. “나는 15년 동안 이 병원에서 일하며 매일 정신병 환자를 운반하면서도 나의 건강한 정신에 대하여 한 번도 감사해 본 일이 없었음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감사의 분량이 그리스도인의 완전(Christian Perfect)의 척도”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일상적인 평범한 생활 속에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임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넘치는 감사는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안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기도하고, 감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헛수가 많아질수록 신앙의 깊이가 더해가는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좋고 사귀면 사귀수록 더 믿음이 가고 정이 가는 사람, 똑배기 보다 장맛이라고 겉보다 속이 넓고 그 사람 말이라면 팔로 메주를 쓴다 해도 신뢰가 가는 사람, 과거 보다는 현재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리고 오늘 보다는 또한 내일이 더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 믿음이란 시작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끝이 더욱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하번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권위가 있으면 그 권위로 원칙을 깨뜨리고 원칙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일들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다시한번 확인하는 것은, 권위는 원칙을 깨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칙에 순종함을 보일 때 오히려 참된 권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게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권위적인 사람이 아니라, 권위있는 자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몸으로 섬기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 때 못 사람들 또한 놀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